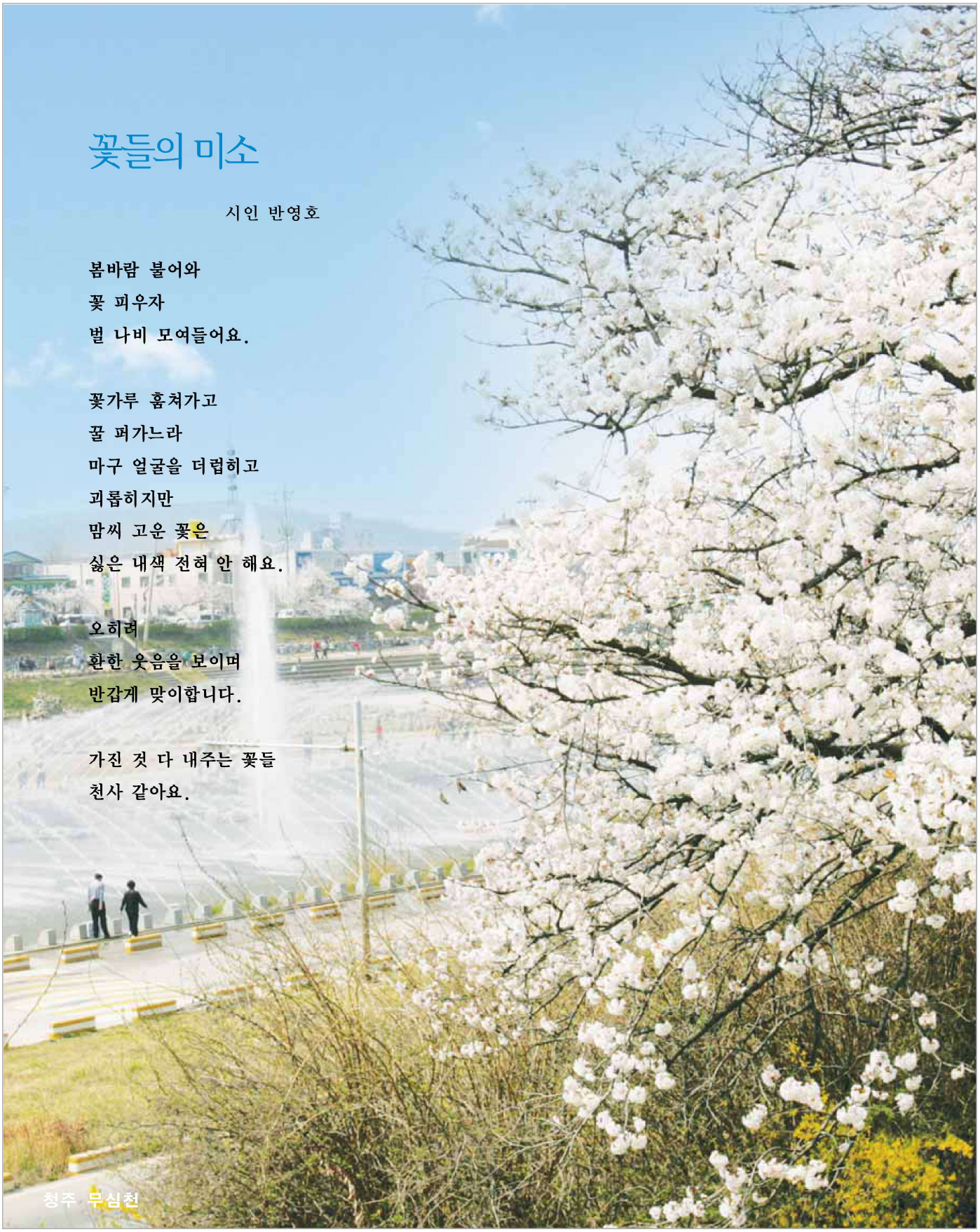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제195호

충청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 전화 (043)220-5123 | http://assem.cb21.net (2009년 4월)



꽃들의 미소

시인 반영호

봄바람 불어와
꽃 피우자
벌 나비 모여들어요.

꽃가루 훔쳐가고
꿀 퍼가느라
마구 얼굴을 더럽히고
괴롭히지만
맘씨 고운 꽃은
싫은 내색 전혀 안 해요.

오히려
환한 웃음을 보이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가진 것 다 내주는 꽃들
천사 같아요.

청주 무심천

개 회 사

경제난 극복위해 행 · 재정력 모두 집중해야…

이 대 원 의장

존경하는 155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제27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시작된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까지 겹쳐 지역 경제마저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해 155만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 · 재정력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3월은 1년 농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예방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는 오늘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사안이나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하게 된 것이므로 꼭 필요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새봄과 함께 155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민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제278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는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문,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이송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제278회 임시회 도정질문, 세종시 설치법 관련 의견서 채택, 전체의원 연찬회 개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안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방문단 우리 도의회 예방, 시 · 도지사, 시 · 도의회 의장, 국무위원 등 합동 워크숍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결과 분석 및 대책보고, 대안학교 설립 추진계획보고 등에 대한 간담회와 지방의회 운영 관련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도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 **임시회 본회의** 3월 17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심의

제16대 충청북도새마을회장 취임

권광택 의원

권광택(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이 지난 달 6일 청주시 용암동 한마음예식장에서 제16대 충청북도새마을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 회 기 : 2009. 4. 15(수). ~ 4. 22(수) (8일간)
- 의사일정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4. 15(월) (14:00)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9. 4. 15. ~ 4. 22(8일간) 2. 기타 안건처리	
4. 16(목) ~ 4. 21(화)	● **본회의 휴회** · 상임위원회 활동 –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 기타 안건처리	4. 18 ~ 4. 19 휴무일
4. 22(수) (11:00)	· **제2차 본회의** 1. 부의안건 처리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기타 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주요현안 처리
행정소방위원회	• 조례안 정비를 위한 의정입법 간담회 • 위원회 소관부서 현지확인 • 기타 현안 처리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현지확인 • 기타 현안 처리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기타 현안 처리
건설문화위원회	• 현안해결을 위한 소관부서와의 간담회 • 도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기타 현안 처리

5분 자유발언

청주 공항 활성화 공동대응 제안

이규완 의원
〈건설문화 · 옥천 제1〉

정부의 공항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하여 우리도민은 민영화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민영화 발표로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을 놓고 충북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도민 무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동 발전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충청권 모두의 힘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충북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도에서 주관이 되어 지자체와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현시점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토론한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실천에 앞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부권의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음과 같은내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촉구합니다.

하나, 민영화에 앞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 · 물류 특구로 지정 할 것

하나,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선행 할 것

하나, 청주국제공항에 국제노선을 확대 할 것

정부에서는 이상 요청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섣부른 민영화는 공항활성화의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 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교육사회 · 청주 제1〉

지금 우리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 등의 사업이 불분명한 시기에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을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청주공항이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한국공항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이며 수도권 위주의 공항육성정책이 가져온 지방공항의 구조적 한계의 책임을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의 회피수단에 불과합니다. 공항활성화를 위한 실리를 찾겠다는 고민은 이해하나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민영화를 수용한 것은 공항활성화의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공항 운영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제선 확대, 공항수요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필요한 시설 확충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며 효율성 개선은 정부차원의 감독권을 이용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영화를 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도민은 섣부르게 민영화를 받아 들이는 것보다 공항수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정우택 지사께서는 민영화 수용입장을 철회하고 충북도민의 우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선행되고 민영화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선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대열에 합류해야 하며,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 도약하는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옥천부활원 사건해결과 시설비리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최미애 의원
〈교육사회 · 민주〉

저는 최근에 언론과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 삼았던 옥천의 정신장애인 보호시설인 부활원 문제와 그 문제를 처리하는 집행부의 처신에 대해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2년 전 옥천의 정신장애인 시설인 부활원에서 생활인 1명이 사망하자 부활원 측에서 가족들에게 단순한 병사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제보자에 의해 이 사건을 재수사 한 결과 원장의 최측근이 위해를 가해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리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보자는 부활원에서의 성폭력사건 등 인권 문제와 생활인들의 직업재활에서 벌어들인 수입금 등에 대한 문제를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에서는 부활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생활인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주장하였고, 관련부서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니 기다려 봐야 한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등의 매우 의례적인 답변과 냉담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누가 들어주어야 합니까?

이들이 처한 고통을 누가 발견해 내야 합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이 일을 외면하고 열심히 파고들지 않는다면 이들 시설에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린당하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복지시설 투명성에 대하여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思則有備(사즉유비) 정신으로 통궐기를~

이언구 의원
〈건설문화 · 충주 제1〉

본 의원은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 듯한, 작금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 때문에 오늘 복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세종시 건설 축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청주공항 활성화 등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으며 또한, 큰 기대를 걸었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건설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일부 해제 발표 이후 크게 주춤거리고 있으니 도민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날 도민 모두가 분연(奮然)히 일어서 오송분기역을 쟁취했듯이 도내 여 · 야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 총궐기해야 합니다.

총궐기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청주공항활성화 등 풀리지 않는 현안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몫을 챙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충북도의 미래가 걸려있는 첨단복합단지 및 현안 사업들이 해결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대규모의 상경투쟁도 불사하는 등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155만 도민 여러분께 도의회와 함께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첨단복합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바라고 호소하며, 도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네 글자를 남기겠습니다.

사즉유비(思則有備) 즉, 비장한 각오와 위기의식으로 무장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생각이라도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옛 말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웅)는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인 3월 25일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및 어려운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조8,002억 3,058만4천원 중 세입예산안은 국비지원이 미확정된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비 15억원을 삭감하였다.

세출예산안은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24억8,700만원을 삭감 세입 차감분 15억원을 제외한 9억8,7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038억4,149만5천원이 증가한 2조7,987억3,058만4천원으로 심사·의결하였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142억5,383만4천원이 증가한 1조6,100억535만5천원으로 교직원 국내연수 및 기초학력 향상 실천사례 발표대회 등 총 9개 사업 4억1,079만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심사·의결하였다.

▲ 간담회 3월 25일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간담회

제1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

(단위 : 천원)

회계별	확정예산액	제출예산액	비고
합 계	2,798,730,584	2,800,230,584	
일반회계	2,417,246,769	2,418,746,768	세입 : 15억원 감액 세출 : 24억 8,700억원 감액 (9억 8,700만원 예비비로 편성)
특별회계	381,483,816	381,483,816	

제1회 충청북도 교육청 추경 예산

(단위 : 천원)

회계별	확정예산액	제출예산액	비고
교육비 특별회계	149,575,152	149,674,404	4억1,079만3천원을 감액 예비비로 계상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동)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창동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제정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중앙부처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였다. (관련기사 3면)

의회운영위원회

제279회 임시회 4월 15일부터 운영키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과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기타 현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다.

2009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은 당초예산 69억294만2천원 보다 6,369만8천원이 증가한 69억6,6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매뉴얼 제작, 월정수당 변경에 따른 증액분 및 의원 원격지회의 출석여비 등 필요경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4월 15일 제279회 임시회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현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어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심사 및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4월 22일 제2차 본 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예산안 심사 3월 17일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소방위원회

민생안정을 위한 의원입법 조례제정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흠)는 2009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 열린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행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과 2009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심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충주소방서 신축청사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회기 중 의결한 8건의 조례안 중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그간 축적된 의정경험을 토대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견제와 감시만이 아닌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수행하였다.

3월 20일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조영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후 원안가결하였으며, 3월 23일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김환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 현지확인 3월 23일 충주소방서 청사 준공식 참석

교육사회위원회

공공부문의 경기부양을 위한 역할 촉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 현)는 제278회 임시회기 중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안학교 설립 및 특별교부금과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앞장섰다.

3.20일 열린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과 출산율을 제고를 위해 보육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재정투자를 촉구했다

또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반해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반영이 미흡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안 심의 결과 충청북도 소관 사업 중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의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 1건과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고 소모성, 행사성 성격의 사업 7건 등 총 35억 8,3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현안간담회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안학교 등에 대해 보고받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간담회 3월 17일 충청북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통한 경제난 극복 주문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는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제278회 임시회 기간중 소관부서인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출연기관인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경제위기에 처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도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껴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례안은 심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은섭 의원의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민경환 의원의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권광택 의원의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영웅 의원의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총 5건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4개 출연기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총체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간담회 3월 17일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추진을 위한 간담회

건설문화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현안추진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는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례시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분명한 반대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과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미흡에 대하여 집중 질타하고, 연구용역비 산출의 구체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삭감 조치를 하였다.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과 경관조례안를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히 한창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지원을 위한 재 · 세정지원, 시군의 이전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여 우리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큰 힘을 실어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예산안 심사 3월 23일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 지원에 적극 나서야

최광옥 의원
〈교육사회 · 한나라〉

문화선진도 추진관련

[질문] 『문화선진도』 실현 5대전략목표 11개 추진과제 중 우리도만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답변] **정우택 도지사** 전국 최초로 충북문화헌장을 제정 · 공포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조문화 커뮤니티 구축과 충북문화예술포럼을 창립 · 운영하고 있음. 또한, 충청북도에 세나협회와 오는 4월, 도립예술단을 창단하여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민간주도 전문기구인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등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질문] 충북이 타 지역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사유 및 향후 확충 계획은?

[답변] **곽임근 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사유는 시설의 대부분이 균특예산으로 지방비 부담이 크고 인구가 줄고있는 농어촌의 경우 국도비를 지원해도 열악한 재정으로 도서관, 박물관 등을 건립하기 어렵기 때문임. 우리 도에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72개소에서 104개소로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음.

복지정책 관련

[질문] 현재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과 향후 계획은?

[답변]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2007년부터 도비 62억원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아이사랑 보너스 카드"를 발급하여 현재 1,36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음. 또한 올해에는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출산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 공무원에게 '주차권 우선배정', '차량5부제 및 당직면제', '임산부 공무원 희망보직제', '모성보호실 설치운영' 등 임산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

일자리확대 종합전략

[질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및 계획은?

[답변]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우리도에서는 2009년도 2월말 현재 98개 사업, 20,871개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2009년도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38,440개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확대와 현재 14개인 사회적 기업을 17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질문]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 지원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내용과 중앙계획과 연계한 지역차원의 연차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용의는?

[답변]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그간 도에서는 『충북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지원과 BK21, 지역거점연구간 육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500여명 이상의 고급 여성과학인력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여성과학기술인만을 위한 지역차원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 · 시행은 미흡한 상황이며, 향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 · 시행해 오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지원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관련

[질문] 충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교육철학은?

[답변] **이기용 교육감** 교육에 대한 기본 생각을 '관심과 사랑, 화합'에 두고, 충북교육의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 바탕이 되도록 하겠음. 교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강화,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만들기 전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확대, 교내외 CCTV 설치 등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음.

도정질문

특위 설치하여 충북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 세워야

심흥섭 의원
〈산업경제 · 충주 제2〉

충북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

[질문] 충청북도 · 의회 · 경제단체 ·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충북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충북경제 살리기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답변] **정우택 도지사** 도,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등 8개 기관 · 단체가 참여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운동본부'를 통해 범 도민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어떤 제도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 지역별로 각계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순회 간담회 개최 또는 충북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4대강 살리기, 세종시 관련

[질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 지역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답변]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의무하도급, 분할발주, 지자체 발주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사업 입찰공고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PQ심사에 가점제를 적용토록 하였고, 지역제한경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함

[질문] 세종시가 특례시가 되어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놓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입장과 향후 대정부대책은?

[답변] **박범수 균형발전국장**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법적지위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조기에 건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역량을 모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도의 문화 예술 발전방향

[질문] 도의 상징이 이제는 '문화선진도'가 아닌 '문화 100년 대계' 충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곽임근 문화관광환경국장**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증대,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문화 선진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과, 2010년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의 창작 · 보급활동 지원은 물론 연구기능을 갖춰 충북문화예술 발전 100년 대계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운영

[질문]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은?

[답변]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는 3,900여명 도내 거주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12개 사업에 총 25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일터 창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문화강사양성, 출산도우미사업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장기적인 다문화가족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음

학업성취도 평가

[질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취 수준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한 대책과 농촌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지원법안'수립을 위한 중앙 정부에 대응 대책은?

[답변]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 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해 질 높은 수업을 전개하는 훌륭한 선생님에게는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평가 및 학교경영 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겠음. 또한, 도 · 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산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방과후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농산촌 지역 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도정질문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은

한창동 의원
〈건설문화 · 청원 제1〉

도정 현안사업 추진 관련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도정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은?

[답변] **정우택 도지사** 정부에서는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5월경 입지희망 자치단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등 평가를 거쳐 6월경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관 방문을 통해 오송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남은 3개월동안 언론매체를 총 동원하여 입지 당위성을 홍보할 것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 특별법안의 문제점인 충청권 명기와 대형기초연구시설을 기능지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수정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각 정당의 간사위원과 지역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우리도의 입장을 건의한 바 있고, 각 정당과 과학계 주요인사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특별법안의 수정의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주민 정착 관련

[질문] 새터민 조기정착 방안은?

[답변] **신동인 행정국장** 새터민에 대한 각종 지원금 지급 및 교육은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실태조사 등의 단순한 거주지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우리 도는 이북도민연합회와 새터민과의 자매결연, 새터민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및 워크숍, 새터민 한마음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금년도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새터민 합동결혼식을 후원하고,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을 지원할 예정임.

[질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답변]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는 출산에 대한 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도에 지방비 62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였고, 중앙에 우수시책으로 소개됨.
둘째아이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농협 제휴 아이사랑보너스카드 발급을 통한 다자녀가정 우대제도 시행,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구입시 할인 혜택부여, 두자녀 이상 보육 · 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금년도 하반기 개최 예정

재개발사업 대책

[질문] 도시 재개발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답변] **박범수 균형발전국장** 재개발추진 시 소유자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이 없고, 재개발 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입자,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주대상자들을 위한 임시주택, 임시상가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정부는 주거세입자의 이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순환재개발 방식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세입자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대책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 지정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관광활성화 방안

[질문] 청남대 주변 관광활성화 방안은?

[답변] **곽임근 문화관광환경국장** 현재까지 청남대 관광 인프라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관람객의 자연경관 조망 및 쉼터공간 제공을 위해 관리동 옥상에 '하늘정원'을 개장하였고 현재 자연생태체험을 위한 자연생태관찰로와 습지생태원 및 음악 분수대를 조성 중임.
금년도에는 골프장 옆에 대통령광장을 조성하여 대통령 테마공원으로 명소화할 계획이며, 무심천~문의면~청남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다양한 문화체험 및 체험이벤트 연중개최, 인기 TV드라마 촬영 등 볼거리를 제공할 것임.
향후 청남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입지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수도법 등 관련법령의 제 · 개정을 추진하고, 자가용 승용차입장 등 접근성 개선은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청남대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도정질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유치 대책은

박재국 의원
〈행정소방, 청주 제4〉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질문] 투자협약에 따른 실제 투자유치 진행여부와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유치 대책은?

[답변] **정우택 도지사** 우리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투자진행 상황을 보면 공장을 준공하였거나 공사중인 기업이 40.4%인 55개, 인 · 허가중인 기업 5개, 설계중인 기업 64개, 입주준비 기업 12개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중 74%인 100여개 기업이 준공하거나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우리 도는 타 시도와 차별화하여 토지매입 등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된 이후에 MOU가 아닌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협약 체결 기업이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하는 기업은 현재로서 없음.

[질문]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의 연계를 위한 정책은?

[답변] **정우택 도지사**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각종 SOC 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한시적 일자리 창출도 확대해 나가면서 도내 기업이나 투자협약체결 기업들의 업종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원하고 지역실업자 훈련 및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고용 및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질문]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투자유치 전략을 재검토할 의향은?

[답변] **정우택 도지사** 최근 우리 도는 녹색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과 2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 분야를 중점 유치해 오고 있음.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등 3대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산업과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유치하고, 서비스산업 유치에도 주력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과 제조업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음.

출자출연기관 운영

[질문]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한 계획과 활용방안은?

[답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추경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타당성 분석 및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상정해놓고 있으며, 기관별로 심도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철저히 유도해 나갈 계획임.

[질문] 성과평가 결과 B, C 등급에 대한 도의 대책과 경영합리화 대책은?

[답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평가결과는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점검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영쇄신방안 수립시 반영토록 할 것임. 또한, 각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관 고유의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고객 만족도, 도정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보완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전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및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한 경영성과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음.

[질문] 저금리 시대에 출자출연기관의 자립운영 계획은?

[답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기관별로 자본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와 수탁사업에 대한 적절한 이윤을 포함하는 원가계산 개선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차이나월드 · 밀레니엄타운 조성

[질문]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유치실패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답변] **박범수 균형발전국장**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그 동안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와 롤로키움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세계경기 불황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돌발변수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한 사안임.

사회복지보조금 종합대책

[질문] 사회복지보조금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은?

[답변]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보조금 비리점검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계좌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관실 주관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도는 횡령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행정착오 및 과실에 의한 과오 지급사례가 소수 발견되어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

세종시특별법 국회통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충청권광역시 · 도의회 공동성명서(요약)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충청권 공약으로 세종시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국방대 논산이전, 청주국제공항의 물류공항 기능 확대 등을 천명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국회과행으로 충청권의 현안사업들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500만 충청인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다.

이에 우리 충청권 광역의회 의장 일동은 500만 충청인들의 이러한 민의를 대변하여 정부가 충청권 공약사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충청권 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에 대하여 3개 시 · 도 광역의회 차원에서 더욱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① 세종시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국가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이루어낸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바탕이 될 세종시특별법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500만 충청권 시 · 도민들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단합과 결집을 통하여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 3개시 · 도 광역의회에서는 행정중심도시의 정상 추진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늦어지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과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협력과 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②충청권 정부주요현안 사업 이행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개 시 · 도의회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고 상생의 지혜를 모아 다음과 같이 협력 실천해 나갈 것이다.

1. 정부는 공약대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고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충청권에 조속히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공항 민영화 정책추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부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해 온 공항활주로 연장 및 화물 터미널 증축, 국제노선의 확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도권 전철의 청주공항까지 연장, 공항북측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업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3. 23.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 남 욱
충청남도의회의장 강 태 봉
충청북도의회의장 이 대 원

▲ 3월 23일 세종시특별법 국회 통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충청권 광역시 · 도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시로 건설 촉구 성명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5만 충북도민과 함께 지난 2. 23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세종시건설특별법」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정부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다.

특히, 본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단일안으로 만든 '세종시 설치법(안)'을 무시하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에 다시 심의한다는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충북도민이 우려하는 대로 법적지위에 있어 의원발의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 중앙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한다면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주변지역에 포함된 지역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놓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지난 2007년 6월 11일에 의견서를 전달한 바와 같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반드시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충북도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한 대로 법적지위와 규모로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년 2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접유치 결의문

세계 최고의 생명산업 메카로 조성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난 수년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을지역별로개정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법안대로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법안 고수는 집적조성만이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과 최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의지를 기저로 현 정부의 태동과출범 직후에도집적조성과 우리도 유치를 천명한 바 있고, 우리 도에서는 연구활동의 접근성 등제반여건이 충족되어, 최적의 인프라를구축해단지가 지정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100만여 도민이 유치염원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그동안 국가발전의 소외와 홀대는 물론, 근래에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가발전 전략의 각종 권역 지정 배제로 성장의꿈을 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탈감 속에서도 온 도민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우리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눈앞에 조성될 단지의 찬연한 모습이 선연한 이때에, 최근 입지선정평가방안의 용역 중간보고서가 정부의 의지나 국가의 미래발전전략과는 달리 정치적 논리에 편승하여, 집적조성에서 분산배치로의 방향 선회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도 의회 의원 일동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155만 도민의 염원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정치적 논리에 의한분산배치를 극력 반대 하고저지한다!

하나, 도민들의 유치역량을 결집시키고 당위성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하나, 단지 지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선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2009년 3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김형오 국회의장님,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이석연 법제처장님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비롯한 국가중요사업에 대한 우리 충북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하여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 · 재정적 지원을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민족의 젖줄인 한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수도권 2,400만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고자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며 청정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투자,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였으며, 환경부의 충주댐 상류지역 각종 개발사업 입지금지 조치에도 우리 충북도민은 오직 깨끗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면서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개발, 관광지조성, 공장신 · 증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팔당댐 유역 8개 시 · 군과 합의하여 충청북도, 강원도를 포함한 한강수계 전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우리 충북도민의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전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수도권은 규제를 풀고 충북과 강원지역은 새로운 규제를 강요하는 역차별 정책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목적은 하천수 수질개선이므로 상수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오염부하량이 높은 하류지역에 한하여 시행하고, 수질이 양호하고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상류지역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당위성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충주댐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정책으로 한강수계의 청정수질 보전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 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 상류지역까지 의무화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합의한 수질오염 원인자인 경기도에 대하여만 시행하고, 충청북도 지역은 반드시 제외하여 줄 것을 155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강력히 촉구 · 건의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의 사전신고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규정 등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함 등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 제명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로 함.
- 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변경 및 도의원 임기규정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등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 제명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로 함.
- 도민감사관의 목적, 기능 변경 및 추가
- 도민 감사관 위촉인원 확대 및 자격요건 변경 :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명예직으로 함.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일 · 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5만원으로 함.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근거조문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의 삭제로 폐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북도립대학 학교장 명칭 변경 : 학장 총장
-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병행 개정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8.6.10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 및 감면 적용시한을 2009.6.30에서 2010.6.30까지 1년 연장 등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상향조정,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운영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301명에서 152명이 감원된 2,879명으로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변경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국제민간기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종류의 규정
- 사업수행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명기 등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를 이용한 토종가축의 보급 ·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방법, 등록대행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규정 등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농촌의 이해, 전통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등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 등

충청북도 경관 조례안
-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사업 대상 · 사업계획서,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기금 확보 및 운용 등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반대 건의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유치 결의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법률상식 주택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즉 이사를 가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마치면(전입신고를 한 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위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 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 그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임차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우선하여 당해 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1/2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재계약 거절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택은 상가와는 달리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고,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국희 – 변호사〉

세무상식 8년 자경농의 경우 양도세의 감면 혜택은 얼마이고, 요건은 무엇인가?

세법에서는 8년이상 직접 자경한 경우에 양도세를 일정부분 감면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와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20킬미터(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둘째,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셋째,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넷째,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1년간 1억(5년간1억)이였으나, 2008년도 양도분 부터 1년간 2억(5년간3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조윤배 – 세무사〉

칼 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의 미래다

강 태 원 의원
(행정소방 · 한나라)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산업의 원천기술개발에서 서비스까지 모든 관련산업의 기회(business chance)를 단일공간에서 구현시킴으로서 21세기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의 근간으로 육성시킨다는 것이 핵심개념이다.

이러한 핵심개념은 우리의 경쟁자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유사한 단지를 생성하고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매우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은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의 핵심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충북은 바이오산업, 특히 첨단의료와 관련된 의약바이오 산업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기도 전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BT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 · 육성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 오송과 오창이다.

미국은 연방 R&D예산 중 35.4조원(24%)을 보건산업에 지원(05년 기준)하여 질병치료,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도 정부투자를 2008년 8조원으로 2002년 대비 투자금액을 2배로 증액하고 신규시장창출, 바이오기업육성, 그리고 10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국책사업 즉,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지 개념보다는 지역간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화되고 있다.

우리가 건설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향후 30년간 5조 6000천억이 투자되어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경쟁거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보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들보다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는 새롭게 단지를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인근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용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화되며,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IT와 융합하여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에 유치 · 건립되어야 한다.

그곳이 바로 오송이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인데, 산업연구원의 이들 산업의 사슬구조 및 지원기관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로서는 오송이 최적의 지역이다. 따라서 최적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오송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야만 하며 인근의 대덕특구, 오창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등과 연계된 첨단의료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발전을 위한 최적의 지역이 있음에도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최선의 방법을 포기한다면 이는 우리 후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이며 155만 도민이 지난 10여년간 염원을 담아 오송바이오산업단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 · 조성되어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칼 럼

충청북도 의회에 바란다.

손 희 준 교수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요즘 우리는 미증유(未曾有)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주위에는 실직자가 넘쳐나고, 대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워 휴학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주변의 가게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을 보면 서민들의 고충이 피부에 와 닿는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어느 때고 어렵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다.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등 거시적인 경제지표가 좋을 때도 개개인에게는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감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환경이나 여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들의 마음가짐이며 행동거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한다면 위기라는 상황을 충분히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도 그간의 활동을 반추해 보고,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활동과 기능에 초점을 두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즉, 무엇보다 도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도의회가 진정한 정치의 장(場)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즉 충북의 많은 현안들이 도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며, 단순히 문제의 지적과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주의 주장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해결책과 대안의 모색뿐만 아니라 대안의 선택이 결국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의회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들이 낮은 자세로 일반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여론을 파악하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즉 도의회가 진정한 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둘째, 도에 대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확실히 해야 한다.

실제로 정례회 때 사무감사를 통해 도에 대한 견제를 하지만, 자칫 정당간의 정파적 입장에서 행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정략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주민들이 외면할 것이며, 행정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가 아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진정한 충북발전과 충북도민들을 위한 도의 정책과 행정을 비판하되,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도민들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충북도의 특수성과 현안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이 경제특별도를 지향하고 전국적으로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자칫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데,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이러한 배금주의(拜金主義)로 인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파악하여 위민(爲民)행정과 인본주의(人本主義) 사상을 경시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러한 경박한 황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문화적이고 교육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충북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보다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선도적인 도의회가 있어, 도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 s

건강상식

좌골신경통과 디스크

모든 사람의 90%정도가 평생에 한번은 요통으로 고생한다고 한다.

그만큼 허리 아픈 사람이 흔한데 요즘분들은 자신이 디스크(요추추간판 탈출증)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많은것 같다.

디스크란 척추마디 사이 추간판 안에 있는 수핵이 빠져나와 신경근을 자극하는 상태 즉 연골의 병이다.

진단은 여러 가지 검사법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고, 확진은 CT나 MRI등의 영상촬영으로 세밀하게 알아볼 수도 있다. 좌골신경통은 병명이 아니라 좌골신경을 따라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디스크, 혈액순환악화, 골반내 장기질환, 근육이 신경을 누름 등과 같이 여러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디스크의원인은 교통사고 등과 같은충격으로 연골이 압박받아 탈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만성적으로 요추부위의 근육이 허약해져서 연골이 삐져나오게 된다. 즉 본인은 다친 기억이 전혀없는것이다.

문제는 통증이다. 처음에는 연골이 삐져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이 직접 통증을 일으키지만 시일이 조금 지나면 더 이상의 통증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척추의 주위 조직인 근육, 인대, 건, 관절 부위의 상태가 나빠서 통증을 지속시키게 된다.

말하자면 척추에 변형이 어느 정도 와있다 하더라도 주위조직이 다시 튼튼해지면 통증에서 해방된다.

그러므로 대개 침, 뜸, 부항, 온습포를 포함한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으로 호전되거나 치료되며 디스크라고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거나 대소변 감각이 상등의 하지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수술요법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경우에도 한번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게 한약복용이 아닌가 한다.

일반 물리치료나 침, 뜸이 허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해진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일후에 재발되기 쉬운반면에, 한약으로 치료하여 어느 정도 허리가 튼튼해지고 나면 복용을 중지해도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허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겠는데 자세를 좋게 할 것, 비만을 예방 할 것, 운동부족이 안되도록 조심할 것은 많이 거론되고 있거니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급한 성격과 잘 우울해지는 경향 또한 척추의 연골을 쉽게 약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자.

[여담] 한의원을 하면서 가끔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지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아직도 가끔 듣게 되는 소리이다.

녹용은 기와 혈을 보하고 양기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큰 약재이다.

면역기능을 높여주고 예방의학적 효과가 뚜렷하여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감염 횟수가 현저하게 줄고 체력을 강화시키며 뇌세포의 활성을 촉진시키므로 성장기의 어린이나 기혈이 약해진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물론 감기초기에 열이 많이 나거나 열이 많은 비만인의 경우 오히려 좋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모든 약이 그러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좋은 약은 없다.

박한응 한의사

窓邊嗑痰 창변객담

천당의 숟가락질.

천당과 지옥의 숟가락은 똑같은 것이었다.

팔 길이 보다 훨씬 길어서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제 입에 밥 한 술 떠 넣을 수 없는 고약한 숟가락이었다.

그런데도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몰골은 확연히 달랐다.

한쪽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할 만큼 쇠약해진 반면에 다른 쪽 사람들은 보기 좋게 살이 오르고 건강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한쪽 사람들은 큰 밥그릇 주변에 바짝 다가앉아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제 입에 넣으려고 아귀다툼을 하지만 긴 숟가락과 팔이 서로 엉켜 난장판이 되고 밥은 더러운 바닥에 흩어져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반대쪽 사람들은 달랐다. 밥그릇에서 숟가락 길이만큼 떨어져 앉아서 밥 한 술씩 떠서 차례로 맞은편 사람을 먹여주면 맞은편 사람도 역시 이쪽 사람의 입에 밥을 떠 넣어 주었다.

숟가락과 팔이 엉키는 일도 없으려니와, 밥알 하나 헛되이 흘리지 않고 알뜰하게 먹었다.

양쪽 사람들의 몰골이 다른 까닭은 그 뿐이었다. 주는 밥도 숟가락도 똑같건만 한쪽 사람들은 서로 먼저 많이 먹겠다는 욕심 때문에 굶주림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한 쪽은 서로 양보하며 남을 먼저 먹여주는 덕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건강해진 것이다.

애초부터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찬 이기(利己)와 탐욕(貪慾)이 지옥을 만들고, 이타(利他)와 보시(普施)가 천당을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릴 적에 많이 듣고 읽은 우화(寓話) 중의 하나지만, 긴 숟가락처럼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헛된 탐욕을 버리고 베풂으로써 덕을 쌓아야 복을 얻는다는 교훈임에 틀림없다.

지난 입시철, 사찰의 법당 안에도 석불 앞에도 불공을 드리는 아낙들이 많았다.

가벼운 산행 중에 잠시 들른 행객이 안면 있는 스님에게 물었다.

'저렇게 기도 손님이 많으니 공양 베푸는 스님들도 고단하시겠지만 기도를 접하는 부처님도 참 난처하시겠네요.'

행객의 물음에서 장난기를 읽은 스님은 웃었다.

'중들이야 절집에 기도하는 분이 많으면 좋지요. 부처님도 난감하실 건 없으실 것이고.....' '저분들이 모두 자녀들의 일류대학 합격을 소원할 텐데, 그 많은 소원을 어떻게 다.....'

'소원은 공 들인 만큼, 정성 바친 만큼 이루게 마련이지요. 자모가 저토록 정성을 바치는데, 자식이 공부에 소홀 했겠습니까? 합격되고 안 되고는 부처님 몫이 아니지요, 평소 공 안들이고 기도 한다고 소원을 다 들어주려면 온 나라 대학을 모두 일류대학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재벌이나 고관대작이 되게 해도 다른 소원이 또 넘칠 텐데, 그건 부처님 몫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나 내 복, 내 집 영화만 비는 기복신앙(祈福信仰)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굳이.....'

"왜 기도를 하느냐, 그 말씀인가요? '나만'이 아닌 남과 이웃의 모든 사람, '더 큰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지요."

듣고 보니, 스님의 말씀이 곧 천당의 숟가락질이요 극락선인들의 자비행(慈悲行)이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다.

행객의 얼굴에 장난기가 걷히고 스님의 얼굴엔 어느새 웃음이 사라졌다.

'저 샘가를 보세요. 새 물을 담기 전에, 먼저 그릇을 비우지 않나요? 마음속에 탐욕과 기심(欺心)을 버리지 못하면 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소원을 이룰 수 없고 평온을 얻을 수 가없지요. 썩은 물을 버리고 항아리를 비워야 새 물을 담을 것 아닙니까? 썩은 물이 탐욕과 기심(欺心)이라면 마음은 곧 항아리지요.'

말을 마치고 행객을 바라보는 스님의 시선이 준엄하다. 네 항아리는 비워 놓았느냐, 그렇게 묻는 것 같다.

'어신 시각이라 점심공양은 늦었고, 저녁공양 까지 기두리시라 권하기도 그렇고..... 절집 공양은 때를 어기면 좀 인색해 놔서.....'

합장한 스님을 뒤로하고 하산하는 행객의 벳속은 분명 비어 있는데, 항아리 속엔 무엇이 들어차 있는지 마냥 무겁기만 하다.

'서로 사랑 하세요,'

선종하신 옹기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도 곧 '천당의 숟가락질'을 익히라는 것일 텐데, 속인이 그걸 익히기엔 멀었나 보다.

安秀吉

의원동정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3월 30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충청고속도로에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해양부 관계관과의 간담회에 참석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3월 6일 도지사 진천군 순방시 주민의견 수렴 및 백곡면 명암리 명심마을 정보화센터 개소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3월 21일 괴산군 문광면 문법2리(원터)에서 열린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애로사항을 청취, 관계자 격려 및 축사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3월 31일 음성군 대소면 (주)경동솔라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 관계관 격려 및 태양광에너지 사업의 발전방안 토의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4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도사회적기업 지원조례안 공청회의에 참석, 조례안 입안관련 의견수렴 및 토론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3월 23일 충주소방서 준공식에 참석, 소방공무원 격려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3월 12일 옥천군 옥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도 501호 확포장 공청회 주관 및 노선에 대하여 주민과 토론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3월 26일 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격려 및 발전방안 모색

◀ 최광옥 의원 (한나라당)

3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국민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청주시 연합회장기 탁구대회 개회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3월 28일 보은군 내북에서 열린 한마음잔치에 참석, 행사 관계자 격려 및 주민 의견 수렴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3월 27일 음성군 음성복지회관에서 열린 음성군 실버가요제에 참석, 주민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3월 11일 영동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 방화준 노인대학장을 비롯한 입학생 축하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최재옥 의원 (증평 제1선거구)

3월 27일 증평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기택 수석부의장 증평방문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지역현안 논의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3월 31일 I.G화학과의 1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당부 및 관계자 격려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3월 24일 청원군 남일면에서 열린 남일면 유도회(儒道會)에 참석, 주민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연만흠 의원 (증평 제2선거구)

3월 16일 증평읍 미암리에서 열린 증평산업단지 준공식에 참석, 관계관 격려 및 지역발전 활성화방안 의견수렴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3월 31일 영동군 학산농업협동 조합장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 수렴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3월 17일 청석컨벤션 티아라에서 열린 청주시 축구통합회장 취임식에 참석, 생활축구 발전 기원 및 관계자 격려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3월 24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 충주시농업경영인 정기총회에 참석, 주민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강태원 의원 (한나라당)

3월 6일 영동군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에서 열린 향숙부 입숙식에 참석, 세계적인 인재육성의 전당이 되길 기원

◀ 최미애 의원 (민주당)

3월 31일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인지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회의에 참석, 추진방안 토론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용두천 복원사업과 증원문화권 사업에 금성면~청풍면까지 모노레일 설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방문을 통한 사업 당위성 설명

◀ 김법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3월 24일 청주 예술에 전당에서 열린 충북여성합창단 정기총회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김환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3월 27일 도지사 괴산군 순방시 군정보고회에 참석, 현안을 청취하고 참석인사와 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김광수 의원 (청주 제1선거구)

3월 31일 청주시 상당구 청석예식장에서 열린 충청고속도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토론 및 관계자 격려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3월 14일 옥천군 이원면 재향군인회 월례회에 참석, 보훈가족의 명예와 숭고한 정신 선양, 위로 및 여론수렴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3월 22일 보은읍 지산 저수지 일원에서열린 군내 저수지 순회 쓰레기 수거 행사에 참석, 깨끗한 환경분위기 선도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3월 23일 충주시 목행동에서 열린 충주소방서 준공식에 참석, 소방가족 노고 격려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 당부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4월 3일 단양군 단성면 체육공원에서 열린 단양군 이장체육대회에서 열린 단양군 이장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3월 9일 대강면 신구리에서 열린 단양군 쌀양지권역 농촌체험마을종합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